

울진·삼척 산불 진화율 70% …헬기 80여 대,진화 인력 3,900여 명 투입

‘을왕리 음주 사고’ 운전자 5년·동승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4.01 (21:46) | 수정 2021.04.01 (21:52)

뉴스 9

□

♡

↶

☰

+

가

▣

고화질

표준화질

자동재생 ☐ OFF

키보드 컨트롤 안내





[스포츠9 헤드라인]

[앵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해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됐던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윤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의 도로에서 35살 A 씨는 음주 상태로 400m 정도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차량 소유 법인 대표인 B 씨도 동행한 상태였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A 씨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4살 C 씨와 충돌했고, C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제보

재난포털

ON AIR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보다 3.5%p ↑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코로나19 현황

Ultimate Game Changer

28.22

대통령선거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19대보다 3.5%p ↑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돌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6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항로 착오로 넘어와”

[A 씨/사건 당시 :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운전자 A 씨에 대해서 법원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동승자 B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 운전해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교사 등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을 열어 줬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운전자의 자기 책임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동승자 B씨가 보험료 3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해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도 고려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운전자에겐 징역 10년, 동승자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는 결국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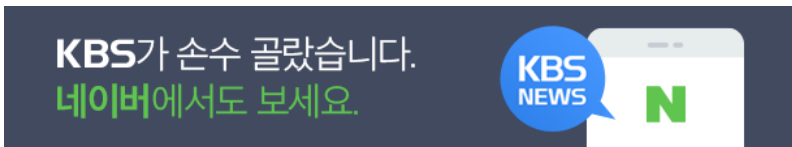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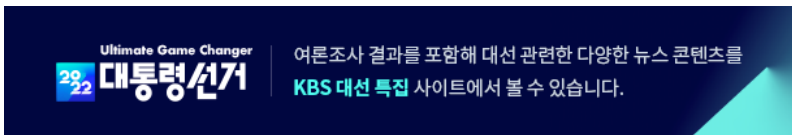
검찰은 구형보다 낮은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 제보하기

-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 전화 : 02-781-1234
- ▷ 이메일 : kbs1234@kbs.co.kr
-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윤나경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기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울진·삼척 산불 옛새패...전체 진화율 70%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영상] “특정 후보 연상시킨다?” 투표 도장까지 바꾼 사연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전주 대전 청주 충주 춘천 강릉 원주 제주

뉴스 아카이브 ▼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